하나님 향한 직감적 피해의식

(이사야 33:1~24)

14.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15.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향한 직감적 피해의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향한 직감적 피해의식'
피해의식은 피해망상과 흔히 혼동되어 사용됩니다만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이고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에 상응하는 올바른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일을 피해로 의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경향성을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한편 피해망상은 아예 발생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으로 여기면서 피해를 느끼는 비정상적 마음상태를 말합니다. 피해라는 안경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피해망상 사이에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피해의식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때는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 특별한 기적이나 은총적 역사를 행하실 때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능력은 좋지만 하나님 자신은 꺼려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라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서 직감적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입니다. 이 직감적 피해의식을 신앙적 측면에서 설명하면 마귀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닌 마귀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증명이나 설득의 과정 없이도 직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의 체질 아래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본능적 상

태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꼬집어낸 이사야의 천재성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한 것이기에 이 지혜가 이사야의 것은 아닙니다만, 천재라는 말이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통찰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분명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BC.701년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남 왕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은 애굽을 비롯한 반 앗수르 세력과의 동맹을 통해서 남하하는 앗수르에 대항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앗수르를 막지 못했고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바치고서야 멸망을 면합니다. 한 달란트가 33kg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양을 바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궁궐의 기둥이나 성전 벽의 금장식까지도 긁어낼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만 산헤립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도 나오듯이 산헤립은 일단 군대를 철수했다가 재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본문 첫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히스기야 왕의 대응이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대신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였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 명이 자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사야의 예언은 2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있던 기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직 앗수르가 자멸하기 전이었음으로 예루살렘과 앗수르의 운명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중간시점입니다.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2절까지는 속임수와 학대를 일삼는 앗수르에 임하리라는 저주와 함께 유다 백성에 대한 간구가 나타납니다. 또 3~6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확실히 구원이 주어지리라는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외가 공포와 다른 점은 없으면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즉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앗수르가 2차 침입을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성읍들이 정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동안 국토는 유린되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 내용이 7~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비되는 이러한 예언이 담긴 이유는, 여호와 경외와 앗수르에 대한 공포를 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사야는 두 종류의 두려움을 선민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앗수르의 공포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이기라는 요청입니다. 앗수르의 공포는 있기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없을 때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선민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앗수르가 주는 공포를 이긴다면, 실제 전쟁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앗수르와 마찬가지로 있어서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항상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이사야의 천재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주어진 시점은 아직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 명이 자멸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멸할 것을 보게 될 예루살렘의 선민들 중에서,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길 자들이 있으리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꺼리고 거부하는 자들이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이고, 앗수르의 침공을 두려워하는 것이 공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앗수르로 인한 공포보다 더 클 때에 실제로도 능히 앗수르를 이기게 되리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희한한 일을 집어내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천재성입니다.
선민은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라고 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앗수르가 하룻밤 사이에 자멸하는 기적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겠다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존재하리라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예언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손해로 느끼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곧 이들이 하나님 경외를 하지 않는 자들임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피해의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삼키는 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느껴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영감에 의한 직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선민들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정작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장정

육십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전부가 죽고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에서 돈이나 자녀의 형통을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말씀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선민들은 기적만 좋아하고 하나님은 싫어했습니다. 마귀에게 영감을 받아 생겨난 직감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기쁨이 되는 1등급 자리가 있습니다.
신앙과 충돌한다고 여겨지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나 과학적 무신론자들, 보편적 무신론자들은 굳이 따지자면 2~3등급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1등급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좋아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능력과 기적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끔 영감을 줍니다.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성령에 의한 것인지 마귀에 의한 것이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마귀가 능력과 기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으로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손해로 느끼면서 기적만 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마귀를 기쁘게 하는 1등급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믿어도 정확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귀에게 영감 받은 것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영감 받은 자의 특징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하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과는 반대입니다.
이 피해의식의 문제는 피해망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실질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피해라고 느끼게 영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배워온 대로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호응은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경외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려다 보니 내 마음에 이미 경외하는 대상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경외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돈 없는 것을 가장 두렵게 여기는 것입

니다. 하나님 경외는 돈이 없으면 무서워하는 상태를, 하나님이 없으면 무서워하는 상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돈을 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해의식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경외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형통하지 않은 것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은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호응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형통이 없으면 두려워하던 마음을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마음에서 자녀를 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피해로 느끼도록 마음에 영감을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미 경외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장로님이 경외하는 것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요청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호응하려면 마음에서 사업을 놓아야만 합니다. 놓는 것은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내 마음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상태를 피해로 느끼도록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교회사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교회에 왜 그렇게 많은 분파가 생기고 갈등과 싸움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따져보면 그 뿌리는 바로 이 피해의식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이미 경외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피해로 느꼈던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온갖 핑계들을 대면서 분열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는 않은데 교회 안에는 남아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이고, 있기에 두려워하는 것이 공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공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공포를 가진 자들의 특징은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경외하던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라고 하였습니다.

‘절기의 시온 성’이라는 말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핵심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임을 의미합니다. 번제단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경외하는 마음을 죽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삼키는 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불꽃이 태우는 것이 하나님이 이외의 것들을 경외하던 마음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은 언어도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의 형통이나 돈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예로 든 자녀의 형통이나 돈은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것들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죄악입니

다. 마귀는 이러한 죄의식을 피해의식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얼핏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기에 나라에 대한 사랑은 자연인으로써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든 자녀든 배우자든 심지어는 내 몸까지 포함해서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없으면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 한 분 뿐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기에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피해의식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나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은 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내가 경외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번제단에서 불태워 죽여야 한다는 것을 피해로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삶을 산다(living the cross).'라는 말이 지상에서 사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십자가 생활화가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귀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착각에 빠져서 기뻐하게 하고 십자가 생활화는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생활화하지 않는 십자가는 복음으로써의 효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갖 죄악과 부패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대해 피해의식을 갖고 생활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손해 본다는 말을 하는 교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라고 한 후에 참 선민이 누구인지를 15절에서 보여줍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나타나는 행위들의 증표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귀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경외하는 것은 원죄의 체질입니다. '돈이 없으면 큰일 난다, 건강이 없으면 큰일 난다, 자녀가 형통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집이 없으면 큰일 난다, 사업이 망하면 큰일 난다'라고 합니다.
얼핏 당연한 이 말들의 실상은 세상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피해라고 속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마음에 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왜 마음에서 자녀를 죽여야 하나? 건강은 좋은 것인데 왜 그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가? 성공하기 위해 사업하는데 왜 사업에 대한 경외심을 없애라고 하는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피해의식이 마귀의 영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이 망할까 두려워하고, 건강이 상할까 두려워하고, 곧 죽을까 두려워하고, 자식들이 잘못될까 두려워합니다. 없을까 안 될까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경외심들은 끊임없이 삼키는 불인 번제단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갖기 위해서 삼키는 불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원죄의 체질 때문에 세상을 경외하려는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살라 태워주셔서 재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돈을 경외하고 자녀를 경외하는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경외하는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설령 오늘 말기 암에 걸려서 내일 죽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자멸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문제는 우선 하나님 경외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태워 없어져야 할 세상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사는 거짓 교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키는 불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세상을 경외하는 마음을 불태워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만족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 경외가 끝없이 불타게 해주셔서 정말로 시원하고 상쾌하고 유쾌하기 그지없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는 삶이 지속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